

치마 · 저고리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 · 미 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연구 -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을 중심으로 -

강 경 자⁺ · 문 주 영* · 임 지 영**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 전공 교수⁺
한국견직연구원 디자인지원팀 연구원*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 전공 강사**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Harmony of Coloration according to Transformation of Color Area-Ratio in Traditional Korean Dress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 On the similarity and contrast coloration -

Kyung-Ja Kang⁺ · Ju-young Moon* · Ji-Young Lim**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Dept. R&D of New Textile Design, Korea Silk Research*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5년 8. 10. 접수: 8. 24. 채택)

Abstract

In this research,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 of the area ratio in the harmonic sense assessment of the coloration of Korean clothes, the coloration of a Korean jacket and a skirt was compounded with a similar coloration and a contrast coloration.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evaluate 16 stimuli of the traditional Korean skirt and jacket with the coloration of the Korean jacket/ skirt, the skirt/ Korean jacket was separately compounded to be 4 tones such as vivid, light, dull, dark. The subjects were 44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of each can be summerized as follows.

As to similar coloration, the korean yellow jacket and red skirt, Korean students feel vivid and dull tone was harmonious, and American students feel vivid, light, and dark tone were harmonious coloration. In inversed case, red korean jacket and yellow skirt, both countries' students recognized that the vivid tone was harmonious. Korean students gave higher points to korean traditional dress in similar coloration such as yellow korean jacket which was small area and red skirt which was large area coloration than inversed color area ratio which red korean jacket and yellow skirt.

As to contrast coloration, the korean green jacket and red skirt, Korean students feel vivid tone was harmonious, and American students feel vivid, dark tone were harmonious coloration. In inversed case, red korean jacket and green skirt were recognized that any tone was not harmonious for both countries' students.

Both countries of student showed the culture gap. Compared with American students, Korean students were familiar with korean dress's traditional coloration, as a result familiar coloration was recognized harmonious coloration.

Key Words: harmony(조화), color area-ratio(색상면적비), Korean dress(한복),
similarity and contrast coloration(유사배색과 대비배색)

I. 서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색과 어떤 색이 배색될 때 조화된다고 판단하는가 아니면 부조화라고 판단하는가? 색채조화를 위한 배색에서는 색상, 명도, 채도 차이가 그 기초가 된다. 색의 조화는 3개의 속성에 의해 조작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색상에 중점을 두어 조화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경우에 색상차가 적은 것과 색상차가 큰 것의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¹⁾, 즉 동등하다든가 유사하다는 공통성이 높은 배색과 더불어 대조와 같은 이질성이 높은 배색도 조화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²⁾ 이는 한복배색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한복 고유배색인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의 유사배색이나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대비배색을 한미 여대생은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여 이들 배색은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조화로운 배색이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³⁾. 이 두 배색은 전통적인 미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 획일과 변화 등과 대응되며, 이해될 수 있다. 대체로 구성색 사이에 공통성이나 유사성 또는 대조성이 높은 배색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는 것은 구성색 간의 거리요인이나 배색되는 색채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색공간 내의 거리가 조화를 설명하는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까지의 배색론은 대부분 색상만을 중요시하여 면적 등의 중요한 요인들은 무시되었다⁴⁾.

納谷⁵⁾는 면적비의 효과는 존재하지만 구성색 요인에 비하면 아주 적다고 하였고 하야시⁶⁾ 등은 면적비의 영향에 따른 조화감 양상은 각각의 배색에 의해 다르다고 하여 조화감 지각에서 면적비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소재나 디자인이 제한되어 있는 한복은 서양복과 달리 치마저고리의 면적비가 6:1 정도⁷⁾로 크게 차이가 난다. 즉 구조상 상의는 짧고 하의는 길어 상·하의 면적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행연구⁸⁾에서도 먼저 배색방법의 하나인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복의 저고리/치마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상·하의 톤을 다르게 한 후, 이들 톤조합을 반대로 치마/저고리에 가도록 하여 상·하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 톤 차이가 큰 배색은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톤 온 톤과는 배색방법이 다른 전통한복의 배색으로 유사배색인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 대비배색인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 즉 치마/저고리의 색상에 차이를 둔 배색일 경우 어떤 색상을 상·하 어느 면적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배색이라도 이들이 주는 시각적 효과나 조화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톤 온 톤 배색시 치마저고리의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의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서 면적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면적이 다른 저고리/치마에 톤은 동일하게 하고 색상이 다르도록 조합한 후 이들 색상의 조합을 반대로 치마/저고리에 가도록 조작하였다. 즉 상·하 색상조합의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한 한복배색에서 상·하 색상이 타피도록 조작한 후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상·하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판단이 우리만의 미적 표현인지, 보편적인 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밝히므로써 배색조화의 이론정립에 기여하고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각각 다른 두 가지색 이상의 색채결합을 배색이라 하며 배색에 대한 미적관계는 색채조화로 설명되고 있다⁹⁾. 20C 독일의 Ostwalt는 “조화는 질서와 같다”고 하여 그의 색입체 속에서 간단한 기하학적 관계에 있는 색끼리의 배색에 의해 조화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Corresponding author ; Kyung-Ja Kang

Tel. +82-11-9594-1283, Fax. +82-55-753-9030

E-mail : kjkang@gsnu.ac.kr

Munsell도 그의 색입체 속에서 색의 균형에 의한 조화로써 색상, 명도, 채도, 면적의 균형점을 설정하여 전통적인 조화론에서도 배색면적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저채도의 큰 면적과 고채도의 저면적은 서로 조화한다’는 방식으로 정석화 되어 있다. 색채조화가 색의 면적과 관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Field나 Munsell 등의 이론에서는 혼색의 결과 중 회색이 되는 색의 구성, 면적비율이 조화를 이룬다고 제시하였다. Judd는 색채조화가 색의 조합뿐만 아니라 그 분량, 면적, 조형상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Moon과 Spencer는 색입체에 있어서의 기하학적 관계, 면적관계, 배색의 아름다움의 척도 등에서 조화이론을 시도하였고, 종래의 색채조화론을 종합분석하여 경험적인 배색법칙에 정량적인 근거를 부여하였다¹⁰⁾.

면적비율의 효과를 연구한 納谷¹¹⁾는 면적비의 효과는 존재하지만 구성색 요인에 비하면 아주 적고, 면적비가 배색의 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따뜻함 등 다른 배색감정에 미치는 영향보다 적다고 하였다. 또한 하야시¹²⁾ 등은 면적비의 영향이 큰 배색과 작은 배색이 있다고 하였다. Goethe¹³⁾는 면적대비는 두색 또는 그 이상의 색면적의 상관관계로 보았다. 면적대비는 색면의 대소의 대비를 말하며 색은 어떠한 크기의 면적에 의해서도 조합시킬 수 있다. Goethe는 제 1차 3원색의 명도를 추정해 색면의 비례로 얻은 후 여기에 2차색과 조화를 이루어 비례를 얻었는데 6가지 색상 즉 노랑:주황:빨강:보라:파랑:녹색=9:8:6:3:4:6이었다. 또한 보색대비의 비례는 노랑:보라=9:3(3:1), 빨강:녹색=6:6(1:1)과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색상의 면적감은 두가지 이상의 색을 조화시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¹⁴⁾.

Horn은 색조화에서 넓은 면적의 색상이 의복의 전체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특히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의 면적비가 1:6 정도로 두색의 면적대비를 고려한 배색에 의해 조화를 이루는 의복형태이다. 같은 색상의 배색이라 하더라도 주 색채가 어떤 면적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의복전체의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 같은 면적의 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면적이 커졌을 경우와, 서로 다른 면적의 조합의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커짐에 따라 채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므로 넓은 면적에 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비해 채도를 낮추는 수단이 취해지고 있다. 또한 명도차가 클 경우 채도차는 적고, 채도차가 클 경우 명도차를 적게 하는 것이 대체로 조화되기 쉽다¹⁵⁾.

Goethe는 잘 조화된 색채조화는 색상환과 반대되는 색상과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하였고 Chevreul은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설을 기초로 독자적인 색체계를 만들었다. 또 색채조화는 유사성과 대비성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배색조화를 체계화시켜 유사성의 조화와 대비의 조화를 구별하였는데, 색차가 크면 클수록, 그 조합은 상호간의 대비가 더 순조로워 질 것이고, 그 색차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색조합은 아름다움을 손상시킬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하였다¹⁶⁾¹⁷⁾.

유사색상의 배색은 명도나 채도의 차이를 크게 하면 효과적인 배색이 된다. 반대색상의 배색은 서로 대비되는 컬러의 차가 큰 배색으로 화려하고 강한 느낌과 분명하고 동적인 느낌을 주며, 보색관계의 배색이라고도 볼 수 있다¹⁸⁾. Gibbins & Scheneider¹⁹⁾는 의복 상의와 하의의 조화에 대한 지각자의 인상이 분리된 상의나 하의에 의한 긍정적 인상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대생과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복디자인과 배색이 한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강혜원, 고애린²⁰⁾은 저고리색을 연두색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색조화(연두/꽃분홍)가 유사색 조화(연두/초록)보다 더 현대적으로 지각되었다고 하였다.

이현화, 박찬부²¹⁾²²⁾는 의복단서, 지각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의복단서 즉 색상, 색상조화, 구조 중 특히 색상조화가 중심특질이 되어 다른 주변특질인 구조, 치마색상보다 더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이혜숙, 김재숙²³⁾은 이미지가 다른 두 색상을 조합시켜 분석한 결과 한복착용자의 상하 배색 이미지는 저고리색과 치마색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으며, 치마색보다 저고리색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복식착용자의 인상형성시 얼굴이 중요한 변인으로 저고리가 얼굴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면적은 치마보다 작지만 이미지에는 좀 더 중요한 효과를 주었다. 강경자²⁴⁾²⁵⁾²⁶⁾는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톤 인 톤과 톤 온 톤, 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복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연구한 결과 한국 여대생은 조화영역의 범위가 좁은 반면 미국 여대생은 다양한 색상과 톤의 배색이 조화를 이룬다고 지각하여 문화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각 문화권에서 익숙한 배색을 조화로운 배색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며, 한국 여대생은 전통적인 배색방법에 익숙하여 친근하지 못한 배색은 불안정한 배색으로 지각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연구에서 유사한 톤의 배색은 면적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톤 차이가 큰 배색은 면적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이상의 결과에서 색채의 조화는 색상의 면적감과 관련이 있으며 한복의 구조상 차이가 있는 상하의의 면적에 어떤 색상으로 배색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각자의 조화감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복에서 빨강치마를 기준으로 전통적 배색인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이 되도록 색상을 조합하고 이들 조합이 치마/저고리나 저고리/치마 중 어느쪽에 배색되느냐에 따라 조화감 지각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복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배색 조화감을 측정하는 의미분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빨강(Red)	노랑(Yellow)	초록(Green)
비비드(vivid)	5R 4/14	5Y 8.5/14	5G 5/10
라이트(light)	5R 8/6	5Y 8.5/6	5G 8/4
덜(dull)	5R 5/6	5Y 7/6	5G 6/4
다크(dark)	5R 2/6	5Y 3/4	5G 2/4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치마-저고리의 전통 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다.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으로 저고리의 깃과 고름색은 치마색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색은 다르게 하였으며 문양, 염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선정된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한국고유의 전통배색을 참고로 빨강치마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배색이 되는 노랑저고리, 대비배색이 되는 초록저고리로 정하여 모두 3가지 색상을 치마-저고리에 사용하였으며 각 색상의 톤은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가 되도록 조작한 후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의 색상에 준하여 색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1〉과 같다.

자극물제작은 CAD system(4D-Box 6800 Zun system)을 사용하여 한복착용자의 그림을 scanning 하여 이미지를 입력시킨 다음 선정된 색상을 치마와 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색상과 톤을 조작한 후 프린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배색은 노랑/빨강, 대비배색은 초록/빨강이 되도록 조합한 후 이들 조합을 저고리와 치마에 배색되도록 하고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하기 위해 이들 조합을 반대로 치마-저고리에 배색되도록 조작하였다. 다음으로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하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치마-저고리가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한 후, 이들을 상하의에 동일한 톤이 되도록 조합하였다. 즉 동일한 톤이면서 상하의의 색상이 유사배색이나 대비배색이 되도록 조합된 톤 인 톤 배색의 자극물 16개가 본 연구의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자극물 조작 분류

배색 톤	유사배색		대비배색	
	노랑저고리/빨강치마	빨강저고리/노랑치마	초록저고리/빨강치마	빨강저고리/초록치마
Vivid	v-Yj+Rs	v-Rj+Ys	v-Gj+Rs	v-Rj+Gs
Light	lt-Yj+Rs	lt-Rj+Ys	lt-Gj+Rs	lt-Rj+Gs
Dull	d-Yj+Rs	d-Rj+Ys	d-Gj+Rs	d-Rj+Gs
Dark	dk-Yj+Rs	dk-Rj+Ys	dk-Gj+Rs	dk-Rj+Gs

노랑저고리/빨강치마 : Yj+Rs,

초록저고리/빨강치마 : Gj+Rs,

빨강저고리/노랑치마 : Rj+Ys

빨강저고리/초록치마 : Rj+Gs

2) 자극물의 평가

한복배색의 자극물에 대한 평가는 피험자 내 설계에 의해 한 피험자가 모든 자극물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 16장은 색상과 톤에 의한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하였다.

3) 조화감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 속의 한복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화되는 - 조화되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였다. 왼쪽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주고 오른쪽 극단에 배치된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부여하여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자극물에 대한 조화감 척도의 신뢰도를 밝히기 위하여 예비 조사시와 동일한 대상인 44명의 여대생들에게 예비조사 시와 동일한 자극물(5개)을 평가하게 하였다. 검사-재검사(test-retest) 방법의 의한 신뢰도 계수는 .745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한국과 미국의 여대생으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생활과학대학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uman Ecology)에서 consumer science와 environment textile and design을 전공하는 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1998년 11월- 1999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여대생은 G대학교 의류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 83명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기술통계와 t-검증,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으로 L.S.D(최소유의차검증)을 하였으며 그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한복의 색상은 전통 한복의 저고리색인 노랑, 초록 그리고 치마색인 빨강을 포함시킨 3가지 색으로 정하고 저고리/치마의 배색을 유사배색(노랑/빨강)과 대비배색(초록/빨강)이 되도록 하여 채도는 통제하고 명도에 변화를 주어 저고리와 치마의 톤을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으로 즉 상·하가 동일톤이 되도록 조작한 후 이들 배색을 역으로 치마/저고리에 가도록 하여 색상 면적비를 달리하였다. 이렇게 조합된 16개의 자극물에 대한 조화감을 한·미 여대생에게 각각 평가하게 하여 배색된 색상의 면적비 변화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3〉, 〈표4〉과 같다.

1. 유사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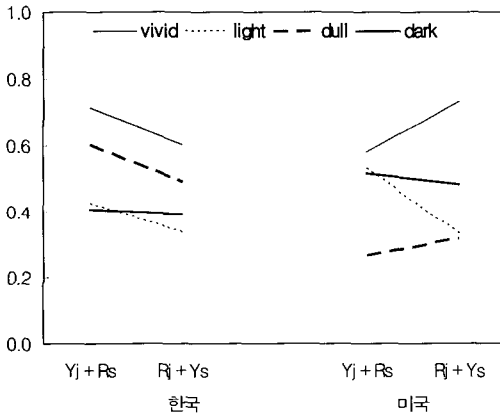
먼저, 한국여대생의 경우 저고리/치마를 유사배색이 되도록 조합한 노랑/빨강의 배색을 역으로 면적이 뒤바뀐 빨강/노랑으로 조합하여 배색하고

〈표3〉 유사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톤	배색	유사배색(Y+R)					
		한국			미국		
		저고리/치마	치마/저고리	t-값	저고리/치마	치마/저고리	t-값
Vivid	0.712 ^{aA}	0.602 ^{bA}	0.0044 ^{**}	0.583 ^{abcA}	0.733 ^{abA}	0.2085	
Light	0.425 ^{aC}	0.337 ^{bC}	0.0400 [*]	0.533 ^{bA}	0.333 ^{bB}	0.2069	
Dull	0.603 ^{aB}	0.489 ^{bB}	0.0077 ^{**}	0.267 ^{bcA}	0.317 ^{bcB}	0.7247	
Dark	0.409 ^{aC}	0.392 ^{aC}	0.6981	0.517 ^{aA}	0.467 ^{aAB}	0.8418	
F-값	0.0001 ^{***}	0.0001 ^{***}		0.2124	0.0070 [*]		

A>B>C>D : 세로비교, a>b>c>d : 가로비교

유의수준 0.05에서 t-분석 및 분산분석 실시. 최소유의차 검정으로 다중비교 실시



〈그림1〉 유사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이들 배색을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으로 조작한 후 유사배색의 면적비에 따른 조화감을 한국여대생에게 평가시킨 결과, 전체적으로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가 반대로 배색된 빨강저고리에 노랑치마보다 조화로운 것으로 지각하였고 이들 배색을 톤별로 보면 면적비 변화에 관계없이 비비드>덜>라이트>다크순으로 조화된다고 평가하였고 특히 순색인 비비드톤의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가 가장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나 빨강저고리와 노랑치마 등 색상 면적비에 상관없이 유사배색의 비비드와 덜톤은 라이트, 다크톤보다 조화되는 배색으로 지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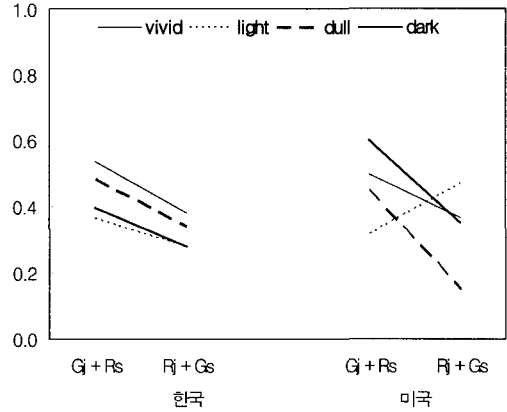
였다. 그러므로 4가지 톤 모두 노랑을 좁은 면적인 저고리에 빨강을 넓은 면적인 치마에 배색하는 것이 색상 면적비가 바뀐 빨강저고리와 노랑치마의 배색보다 조화가 잘되는 것으로 지각하여 색상 면적비에 따라 조화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빨강과 노랑, 노랑과 빨강은 동일한 색상의 배색임에도 색상의 면적비에 관계없이 두 가지 배색 모두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노랑과 빨강의 배색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여대생들이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배색이 더 조화된다는 평가를 한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배색방법에 익숙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사배색인 경우 색상 면적비에 상관없이 비비드나 덜톤은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나 다크톤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같은 배색이라 할지라도 배색되는 톤에 따라 조화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색상조합의 영향만이 아닌 톤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여대생은 비비드의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배색보다 반대로 면적이 뒤바뀐 빨강저고리와 노랑치마의 배색이 보다 잘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동일한 색상의 조화임에도 불구하고 면적비 변화는 톤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상·하의 배색이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일때는 덜톤을 제외한 비비드, 라이트, 다크톤의 배색은 조화되지만 상·하 면적비가 뒤바뀐 빨강저고리에 노랑치마일때는 톤에 따라 차이를 보여 라이트와 덜톤의 경우는 조화되지 않는데 비해 비비드톤에서는

조화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랑 저고리에 빨강치마를 입는 경우 톤간의 조화정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덜톤을 제외하고는 톤에 관계없이 조화가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빨강저고리에 노랑치마를 입는 경우 라이트톤의 배색에서는 조화정도가 매우 낮고 비비드톤에서는 매우 높게 나타나 치마 · 저고리의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에서 평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마 · 저고리의 배색에서 노랑저고리에 빨강치마를 배색할 경우는 덜톤을 제외하고는 비비드, 라이트, 덜톤 중 어느 톤이나 상관없고 빨강저고리에 노랑치마를 배색할 경우는 비비드톤으로 하는 것이 조화감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라이트나 덜톤으로 하는 것은 비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 빨강저고리와 노랑치마 즉 유사배색일 경우 한국여대생은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조화감 평가에서 일관된 차이를 보여 3가지 톤 모두에서 노랑/빨강의 배색이 빨강/노랑의 배색보다 조화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지각한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일관된 평가를 하지 않아 양국여대생은 문화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2. 대비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 · 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먼저 저고리/치마를 대비배색이 되도록 조합한 초록/빨강의 배색은 톤이 뒤바뀐 빨강/초록으로 조합하여 배색하고 이들 배색을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톤으로 조작한 후 대비배색의 면적



〈그림2〉 대비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비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 한국여대생의 경우, 톤별로 보면 대체로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배색은 반대로 조합된 빨강저고리와 초록치마의 배색보다도 조화된다고 지각하였고 이들 배색은 면적비 변화에 상관없이 비비드>덜>다크>라이트 순으로 조화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배색시 비비드와 덜톤일때는 조화되지만 라이트톤일때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한데 반해 빨강저고리와 초록치마의 배색은 톤변화에 상관없이 부조화로 지각되었다.

다음 미국여대생의 경우, 초록저고리와 빨강치

〈표4〉 대비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미 여대생의 조화감 지각

톤	배색	대비배색(G + R)					
		한국			미국		
		저고리/치마	치마/저고리	t-값	저고리/치마	치마/저고리	t-값
Vivid	0.536 ^{bA}	0.383 ^{cA}	0.0010 ^{***}	0.500 ^{bcAB}	0.367 ^{cAB}	0.3539	
Light	0.361 ^{abC}	0.279 ^{bB}	0.0492 [*]	0.317 ^{bB}	0.467 ^{bA}	0.2868	
Dull	0.483 ^{bAB}	0.341 ^{cAB}	0.0003 ^{***}	0.450 ^{bAB}	0.150 ^{cB}	0.0157 [*]	
Dark	0.398 ^{aBC}	0.278 ^{bB}	0.0060 ^{**}	0.600 ^{bA}	0.350 ^{aAB}	0.0487 [*]	
F-값	0.0002 ^{***}	0.0244 [*]		0.2094	0.0886		

A)B)C)D : 세로비교, a)b)c)d : 가로비교
 유의수준 0.05에서 t-분석 및 분산분석 실시, 최소유의차 검정으로 다중비교 실시

마의 배색을 면적이 뒤바뀐 빨강저고리와 초록저고리의 배색보다 더 조화된다고 지각하여 면적비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그 차이는 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하의 배색이 초록저고리에 빨강치마를 배색할 경우는 라이트톤을 제외한 다크, 비비드, 델톤 중 어느톤이나 상관없고 특히 다크톤의 배색은 매우 조화된다고 한 반면에 상·하 면적비가 뒤바뀐 빨강저고리에 초록치마일때는 톤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어 라이트톤의 경우는 조화되지만 다크, 비비드, 델톤 특히 델톤의 경우 매우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면적비 변화가 바뀐 빨강저고리에 초록치마를 배색할 경우 델톤의 배색이 라이트톤의 배색에 비해 평가점수가 현저하게 낮아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배색과 빨강저고리와 초록치마의 배색에 대한 조화감의 평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한복에서 대비배색을 할 경우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경우는 다크, 비비드, 델톤 중 어느것이나 상관없고 빨강저고리와 초록치마의 배색인 경우는 라이트톤으로 하는 것이 조화감을 얻는데 효과적이고 델톤은 매우 비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한국여대생은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 빨강저고리와 초록치마 즉 대비배색일 때 톤에 상관없이 색상의 면적비 변화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빨강/초록보다 초록/빨강의 배색이 조화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지각한 반면 미국여대생은 델, 다크톤에서만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일관된 평가를 하지 않아 양국여대생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복배색 시 노랑, 빨강, 초록의 3가지색으로 저고리와 치마에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이 되도록 조합한 후, 다시 이 색상들을 역으로 저고리, 치마에 배색되도록 조합하여 이들 배색을 4가지톤 즉 비비드, 라이트, 델, 다크톤으로 조작하여 색상 면적비와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이 한·미여대생에게 어떻게 지각되는지를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 빨강저고리와 노랑치마 즉 유사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시 한국여대생은 치마·저고리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비비드, 델, 라이트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저고리/치마의 배색이 노랑/빨강일때가 빨강/노랑보다 조화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치마·저고리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라이트톤에서는 빨강/노랑의 배색이, 다크, 비비드, 델톤에서는 노랑/빨강의 배색이 조화감을 높인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정도는 문화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 빨강저고리와 초록치마의 대비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 시 한국여대생은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4가지 톤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이 빨강/초록보다 초록/빨강이 조화된다고 지각하였다. 특히 비비드와 델톤에서 면적비 변화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치마·저고리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델, 다크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고리치마의 배색이 라이트톤일때는 빨강/초록이 조화정도가 높고 다크, 비비드, 델톤에서는 초록/빨강이 빨강/초록의 배색보다 조화정도가 높게 평가되어 색상의 면적변화와 톤에 따라 조화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양국여대생은 한복의 전통배색으로 알려져 있는 노랑/빨강의 유사배색이나 초록/빨강의 대비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에서 치마·저고리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여 면적비의 영향 양상은 각각의 배색에 의해 다르며 면적비의 영향이 큰 배색과 적은 배색이 존재한다고 한 하야시²⁸⁾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그러나 색상 면적비의 영향양상은 톤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었다.

유사배색이나 대비배색에 대한 조화감 지각에서 색상면적과 톤에 따라 한국여대생과 달리 미국여대생은 일관된 평가를 하지 않아 양국여대생은 문화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여대생의 경우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가 한복의 전통적인 배색이 주는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고 미국여대생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복의 전

통배색에 익숙한 문화권과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의 차이가 조화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친근한 배색이 조화를 이룬다는 Judd의 조화론²⁹⁾을 지지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한복의 치마 · 저고리의 톤은 동일하게 하고 색상에 차이를 두어 색상의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으로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배색유형, 의복유형, 톤과 색상을 동시에 변화시킨 배색에 대한 조화감 평가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조화감 평가시 피험자의 범위가 한정되고 강의실에서 이루어져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수석 (1993). *조형심리학입문*. 서울: 지구출판사, p.128.
- 2) Ibid., p.229.
- 3) 강경자 (2001).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1보)-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pp.731-742.
- 4) 近江源太郎, 권민 역 (1991). *조형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 5) 納谷嘉信 (1973). *色彩の心理効果*. テレビジョン學會(編) 測色と色彩心理 日本放送出版協會.
- 6) 林知己夫, 相馬一郎, 富家直, 近江源太郎, 矢部和子 (1975). 配色の調和判斷に及ぼす面積比の効果. *日本心理學會* 第 39回大會.
- 7) 김형자 (1980). 의상의 배색감정효과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
- 8) 강경자, 추미선, 팽숙경 (2005).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복배색의 조화감 비교 연구 -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3(5), pp.107-115.
- 9) Birren, F. (1955). *New Horizons in Color*. NewYork: Reinhold Publishing Corp.
- 10) 김미경 (1996). 면설 색 체계를 기본으로 한 색채조화론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納谷嘉信 (1973). *Op. cit.*
- 12) 林知己夫, 相馬一郎, 富家直, 近江源太郎, 矢部和子 (1975). *Op. cit.*
- 13) Goethe, J. W. (1980). *Traite des Couleurs*. S.R: houet-Croze, p.113.
- 14) 조필교, 정혜민 (1998).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p.92.
- 15) 김수석 (1993). *Op. cit.*
- 16) 정삼호 (1987). 성인여성의 의복에 대한 색채 및 배색선호에 관한 연구. *가정문화논집* 1, pp.137-152.
- 17) Birren, F., 김진한 역 (2003). *색채의 영향*. 서울: 시공사, p.84.
- 18) 김현성 (2001). *색채학*. 서울: 일진사, p.51.
- 19) Gibbins, K., Scheneider, A. (1980). *Meaning of garments: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f an outfit and the message carried by its component garm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1, pp.287-291.
- 20)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 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pp.211-227.
- 21) 이현화, 박찬부 (1997).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1) -의복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pp.313-336.
- 22) 이현화, 박찬부 (1998).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II)-지각자 변인을 중심으로-. *복식* 37, pp.984-994.
- 23) 이혜숙, 김재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1) -여자저고리, 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 실험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pp.597-606.
- 24) 강경자 (2001). *Op. cit.*
- 25) 강경자 (2002).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 반응 연구(제2보)-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3/4), pp.443-453.
- 26) 강경자, 문주영 (2004). 한복 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3보)

- 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pp.962-973.
- 27) 강경자, 추미선, 팽숙경 (2005). *Op. cit.*
- 28) 林知己夫, 相馬一郎, 富家直, 近江源太郎, 矢部和子 (1975). *Op. cit.*
- 29) 近江源太郎 (1984). *Op. cit.*